



삼성건설이 지난 3월 '유비쿼터스' 아파트 신상품 설명회에서 선보인 메직스크린, 출입카드를 갖다 대면 택배·우편물이나 먼지소식이 나타난다. [삼성건설 제공]

주택 · 건설업계 '유비쿼터스' 바람 드세다

주택이 '단순한 잠자는 곳'이 아니라 의료·건강, 인간 감성과 라이프스타일까지 제어하는 최첨단 주거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도 최근 서울 세종로 청사에 유비쿼터스 드림 상설 전시관을 마련했다.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해 인터넷과 컴퓨터 등을 즐길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 · 건설업계에 유비쿼터스 바람이 드세다. 지난해 친 환경 · 웰빙에 이어 올해는 유비쿼터스가 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의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주택에 접목, 주거문화를 업그레이드하려는 것이다.

주택이 '단순한 잠자는 곳'이 아니라 의료 · 건강, 인간 감성과 라이프스타일까지 제어하는 최첨단 주거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바람은 개별업체 · 특정 단지에 그치지 않는다. 용인 흥덕, 화성 동탄신도시 등은 아예 전체를 유비쿼터스 도시로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파트가 똑똑해진다

삼성건설은 지난 3월 기술 · 성능 · 디자인 · 서비스를 통합한 감성지능 유비쿼터스 아파트 신상품 설명회를 열고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강조한 신개념 주거공간 '래미안 U 플랜'을

발표했다.

삼성건설이 선보인 아파트는 각종 정보기술(IT)기기를 접목한 4세대 최첨단 주택으로 선진국에서도 아직 실용화하지 않은 것이다. 거울 앞에 서면 입을 옷을 자동으로 연출해주고(매직 거울), 단지내 벤치에 앉으면 음악이 흘러나오며(디지털 벤치), 오감(五感)을 자극해 심리적 안정을 준다(감성정원)···. 현재 적용단계에 있는 기술 외에 인간의 감성과 라이프스타일까지 제어하는 미래 기술인 것이다.

이 회사 이상대 사장은 “유비쿼터스로 대변되는 미래 첨단주택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올 분양 아파트부터 단계적으로 이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건설도 입주자들이 집안에서 병원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이 회사는 이를 위해 최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와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이 서비스는 실내 측정기기를 통해 입주자들이 체지방과 혈압 등을 체크하면 병원이 이를 바탕으로 진단을 한 뒤 알려주는 건강개선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측정기기로 건강 지수를 분석, 입주자에게 맞는 권장 식단이나 운동프로그램도 제시한다.

포스코 건설은 5월 분양할 인천 송도의 주상복합아파트 더샵 퍼스트월드에 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회사측은 “국내 최초로 유비쿼터스 의료시스템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GS건설도 디지털 시스템을 보안과 연계시킨 아파트를 선보이고 있다. 예컨대 지하주차장에는 ‘비상호출 시스템’을 도입, 범죄 발생 때 자동차 열쇠에 부착된 버튼만 누르면 위험상황을 관제실에 화면으로 전송시키고 즉각 보안경비요원이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주거공간 곳곳에 각종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면서 아파트 상품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비쿼터스 신도시도 속속 나온다

한국토지공사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흥덕지구 65만평을 국내 최초로 최첨단 미래형 디지털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2008년말 3만여명이 입주할 흥덕지구에는 초고속광통신망을 기반으로 도시정보 관제센터가 설치돼 생활안전, 교통안전 정보서비스가 제공된다. 주민들은 출근 전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ITS)을 통해 도로 정체 여부와 소요시간을 미리 체크해 편리한 출근길을 선택할 수 있다. 또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이 가능한 학원수업을 받을 수 있고 화상회의, 화상전화, 원격진로도 가능해진다.

화성 동탄 신도시·성남 판교신도시도 유비쿼터스 도시로 만

들어진다. 토공은 화성 동탄 신도시 274만평을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디지털 도시로 개발할 방침이다. 신도시 전체에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고 도시내에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정보가 교류되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미래형 도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토공 관계자는 “디지털 도시는 도로·공원·녹지 등이 갖춰진 지역에 방송, 통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광대역 통합망 계획을 이 도시에 접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판교신도시의 ‘U타운(유비쿼터스 타운)’ 계획도 본궤도로 올랐다. 분당 서울대 병원은 판교인터넷파크 조성사업조합(PIPA)과 U타운 조성 프로젝트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 입주자들에게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타운에는 유비쿼터스 건강증진 센터와 헬스연구소, 외래진료소 등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관련사업에 필요한 환경이 조성된다.

경기도도 수원시 이의동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광고 테크노밸리(일명 이의신도시)를 유비쿼터스·생태도시로 짓기로 했다. 첨단 정보화 인프라를 갖춰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 접속이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방에서도 유비쿼터스 도시 개발이 한창이다. 충북도는 오송 생명과학산업단지를 유비쿼터스 도시로 건설기로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기반 구축에 나섰으며 부산시도 유비쿼터스 도시(U시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산은 항만·교통·산업·관광·컨벤션·전자정부·시민생활 등 도시 전체에 디지털을 적용해 꿈의 첨단 도시를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정보통신부도 최근 서울 세종로 청사에 유비쿼터스 드림 상설 전시관을 마련했다.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해 인터넷과 컴퓨터 등을 즐길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건국대 조주현 부동산 대학원장은 “주택·건설업계에 불고 있는 유비쿼터스 바람은 주거문화에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며 “다만 유비쿼터스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입주자에게 전가돼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박원갑 중앙일보기자